

社 說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응비

— 97년 새해에 부쳐

1997년 정축년(丁丑年) 새해가 밝았다.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새 아침은 항상 새롭기 마련이다. 누구나 한 번쯤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외유으로 한 해의 계획을 설계했을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아끼고 충실히 살아가는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때이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이다.

과란만장했던 20세기

이제 21세기도 3년 앞으로 다가왔다. 20세기가 역사의 뒤전으로 서서히 저물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20세기는 다른 어느 세기보다도 인류에게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준 격동의 세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세기 우리나라 현대사도 참으로 파란만장한 역사의 나날로 점철된 시대였다. 우리는 결코 20세기가 가져다준 민족사적 고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어느덧 국제사회는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발빠른 정보사회는 이미 21세기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든 분야에서 미래화 정보화 세계화를 당면과제로 삼고 21세기에 대비하고 있다.

대학경쟁의 긍정적 평가

그러나 정작 1997년을 맞는 새해 국내외의 소식들은 그리 밝지 못하다. 국내적으로 경기 침체, 물가상승, 수출 부진, 외채증가,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작년말 노동관계법의 국회 날치기 통과로 인한 노동계의 파업, 여야 정치 세력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북한의 식량난과 안보 문제 등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7년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권 주자들 간의 정치적 이해와 반목으로 사회 분위기는 극도로 혼란해질 전망이다.

국외적으로도 세계발달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여 테러와 폭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의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문화 보편주의를 표방한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부활되어 국가간 민족간의 인종 영토 분쟁 등 국제적 분쟁들이 잦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97년을 맞는 대학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은 우리 대학이 또다시 사회적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의 대학들은 교육개혁이라는 대명제 아래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는 곧 대학 평가로 이어지는 대학간 무한경쟁의 시대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대학 간의 경쟁은 대학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결과를 얻었다.

교육·연구 우선했던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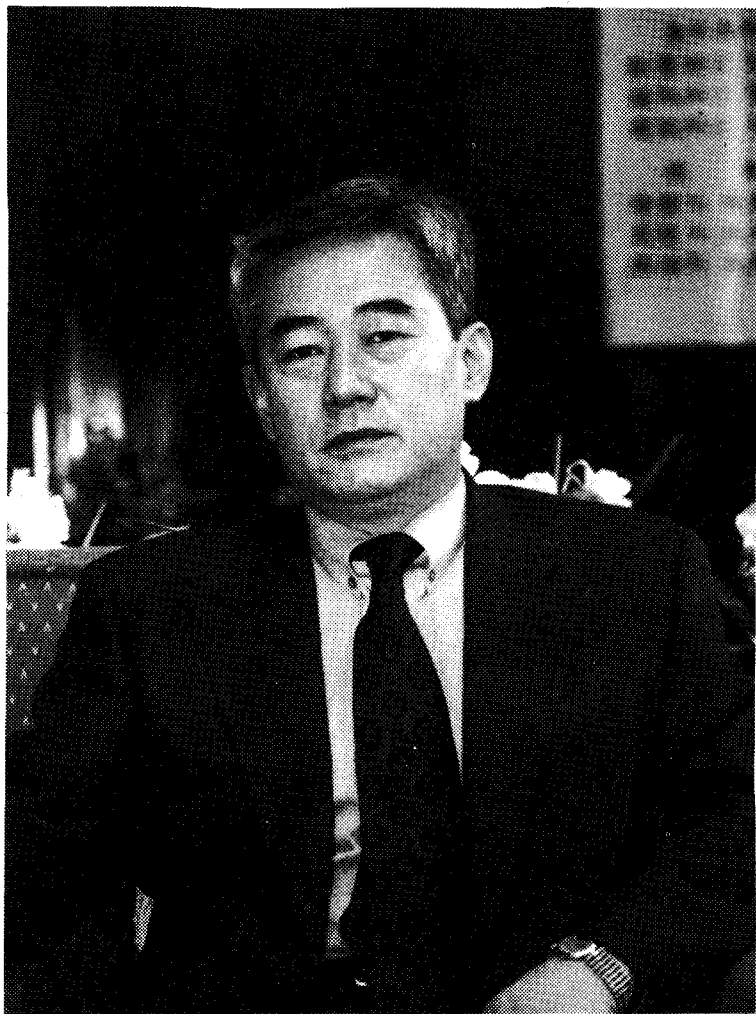
이제야 비로소 대학이 대학다운 면모를 갖추려 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들이 이번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이 다시금 대학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구와 교육을 위한 대학 발전이 뒷걸음질쳐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미래사회의 우리 민족을 위하여 진정으로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음 한뜻의 경희

우리 대학은 50주년을 눈앞에 두고 새로운 응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작년 12월 교수협회는 9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총장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임 총장의 지도하에 모든 경희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미래의 위대한 경희 창조를 위해 온 힘을 모을 때이다.

한알의 밀알로 헌신하는 한해

97년 새해를 맞으며



조 정 원

(총장)

격동의 병자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금년 한 해는 보람차고 건강하며, 소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 문명의 도래

저는 지난 해 말에 영광스럽게도 모교인 경희대학교의 제10대 총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행정경험을 하였지만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오로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설립된 경희대학교는 설립자이신 학원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의 애정어린

문제들이 빈번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구성원들의 애정과 헌신은 우리 대학만이 갖는 커다란 장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이와 같은 구성원들의 애정어린 헌신을 화합이라는 우리의 명제로 승화시키고 경희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의 명문 사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라 믿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교출신의 자부심

우리 대학의 교시는 '문화세계의 창조'입니다.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는 경희의 이상이며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단계는 참된 교

사하기 위한 제정의 확충은 한정된 수입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무한한 지적, 물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산을 충분히 활용한 수입의 확충과 국고와 기업의 교육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동문과 경희의 발전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투자의 동인을 부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초의 모교출신 총장으로서 저는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

무한경쟁시대 '특성화'로 승부해야
인성교육 위한 투자노력 다할 터
경희 발전 화합으로 이루어가길

이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금세기의 말인 1999년에 우리 대학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희가 고향산 자락에 등지를 편지 반세기 동안 실로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 냈으나,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도 대학이 처한 교육환경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으로 학사 운영체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대학간 경쟁은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치열한 투쟁의 양상으로써 번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물질의 조화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은 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대학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같은 대학의 기본적인 사명을 다하고 우리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일찍이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훨씬 이전인 1960년 대 초부터 국제화에 앞장서 온 대학입니다. 이런 선도적인 경험을 더욱 신장시켜 가장 먼저 세계속에 우뚝서는 대학을 지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국제화를 지향한 나머지 국적없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

육이며, 사람을 올바른 인간으로 기르는 인간교육 즉, 인성교육에 경희가 앞장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수들이 훌륭한 연구업적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구환경 조성, 기금의 확보, 시설과 기자재의 첨단화를 통한 실용교육의 강화는 물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한 재원의 확보, 구성원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

니다. 경희의 이름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벽두에 저는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에게 경희발전을 위해 한알의 밀알이 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경희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며 모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고 황 만 평



“세계 최고를 찾아라!”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KCC

(주) 금 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